

류큐제도(琉球諸島)의 선사시대문화(先史時代文化) 개관: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다카마야 히로에이(高宮廣衛)*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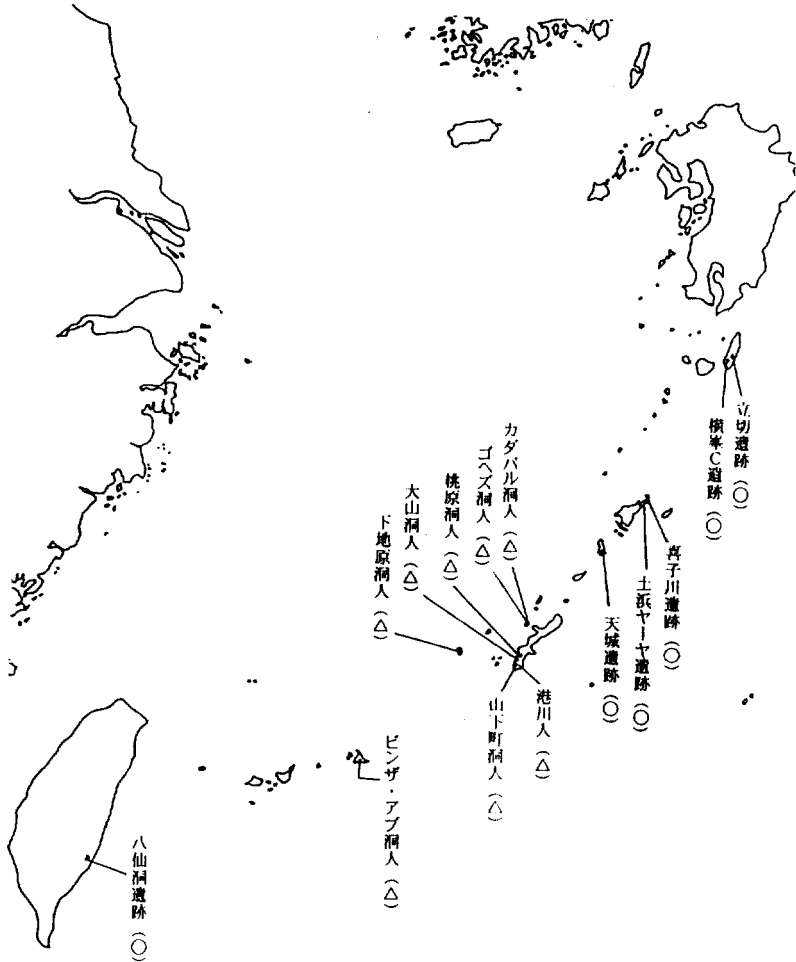
큐슈(九州)의 남단부터 대만사이에 호상(弧狀)으로 분포하는 146개의 섬들(전체길이 약 1,200km)은 일반적으로 남서제도(南西諸島)라고 불리고 있으나, 지리학상의 정식 명칭은 류큐열도(琉球列島)이다. 이 열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아마미(奄美)제도 이북은 현재의 가고시마(鹿兒島)현이고, 오키나와(沖繩)제도 이남은 오키나와현이다. 그러나 류큐왕국시대(琉球王國時代)에 아마미(奄美諸島)는 류큐에 속하여 류큐문화권을 형성하였다. 이번은 이 류큐열도 가운데 남반부인 오키나와현의 고고학에 관해 개관해 보고자 한다.

2. 구석기시대

우선, 구석기시대부터 보기로 한다. 현재, 오키나와에서는 구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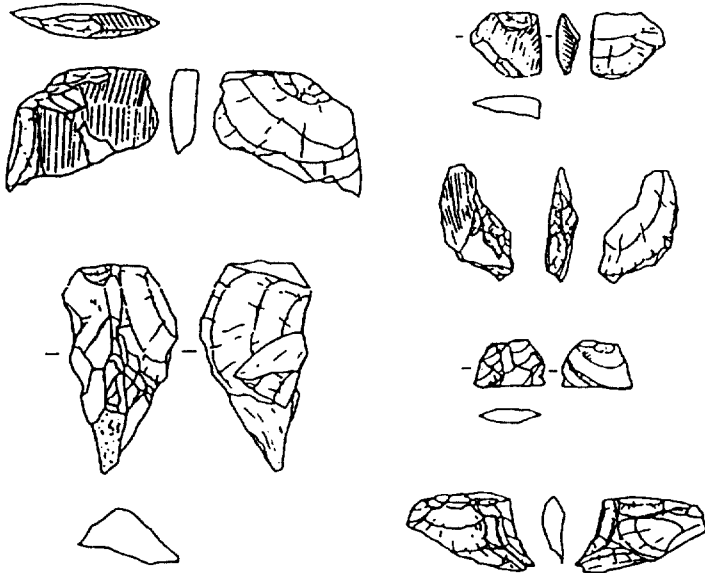
*오키나와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시대인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소의 유적에서 알려졌다. 진화의 단계로 말하면 모두가 신인(新人)이며, 구인(舊人)이나 원인(原人)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신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宮田宋二「南九州の舊石器文化」『日本考古學協會 1998年度 沖繩大會資料集』, 宋文『長濱文化』をもとに筆者作成)

<그림 1> 류큐열도(南西諸島) 및 대만의 구석기시대 유적



(『土浜七一一遺跡』 鹿兒島懸埋 文化財發掘調査報告 47, 1988)

〈그림 2〉 츠치하마 세세(土浜七一一)유적ⅢC층 출토석기

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그들이 사용했을 도구류(道具類)가 발견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아마미 제도(奄美諸島)나 또 그 북쪽의 다네가시마(種子島)에서는 부정형박편석기군(不定形剝片石器群)을 중심으로 하는 2~3만년전의 석기(그림 2)가 발견되어, 이들의 석기가 대만의 팔선동(八仙洞)이나 중국대륙 남부의 후기 구석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후술할 육교(陸橋) 시야문제를 고려할 때 오키나와의 구석기문화는 남방이 기원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발견되고 있는 아마미의 자료는 이후 발견되리라고 생각되는 오키나와의 구석기를 생각하는 데 참고가 된다.

다음에 인접분야의 성과에 관해 간단히 적겠다.

1) 인류학상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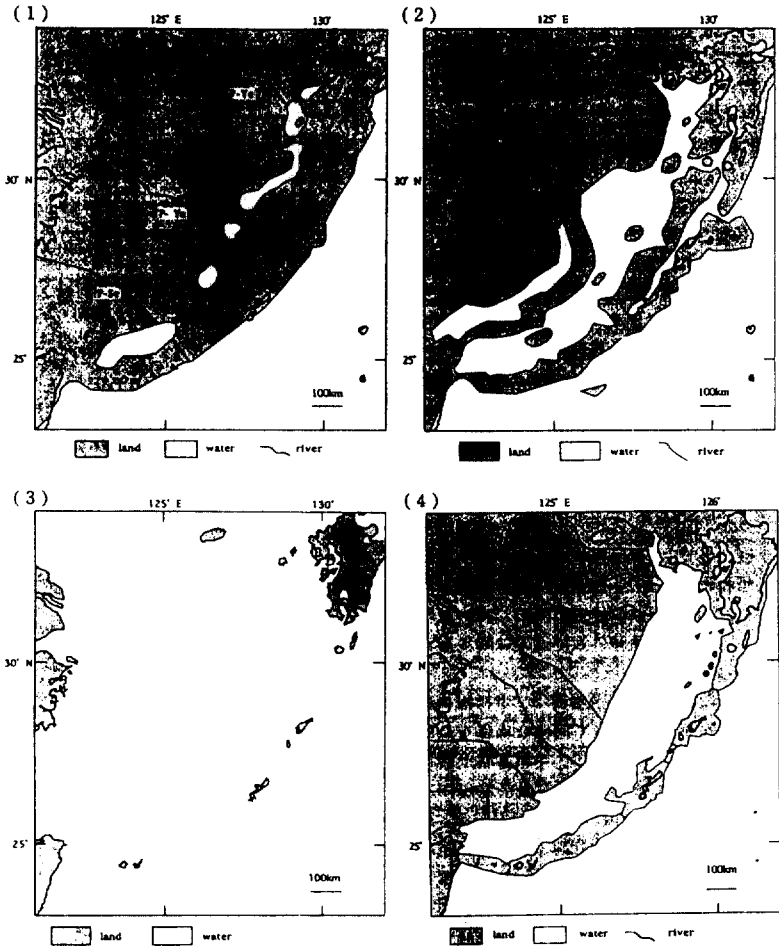
오키나와에서는 현재까지 구석기시대의 인공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림 1과 같이 갱신세(更新世)에 속하는 인골(人骨)이 8개소의 유적에서 보고되고 있다. 모두 다 신인(新人)으로, 원인(原人)이나 구인(舊人)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발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신인가운데 최고의 자료는 32000년전의 야마시타초(山下町) 동인(洞人)으로, 7세 가량의 여아의 경골(頸骨)과 두골(頭骨)의 파편이 여러 점 검출되고 있다. 3만년전이라면 신인가운데서도 세계적으로도 오랜 편에 속하며, 그런 까닭에 그 형질적 특징에 관해서 관계자의 관심도 높지만, 아쉽게도 유아골(乳兒骨)이기 때문에 인종적 특징을 보족(捕捉)하기 어렵다고 한다. 오키나와 출토의 신인가운데서 자료가 가장 풍부한 것은 18000년전의 미나토가와인(港川人)으로서 5~9 체분(體分)의 자료가 입수되었다. 미나토가와인의 형질적 특징을 인류학자인 馬場悠男 박사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최고(最古)의 몽골리언(신인)」이라고 평하고 있다.

2) 지질학상의 성과

그림 3은 류큐대학의 기무라마사야키(木材政昭)교수가 작성한 갱신세의 고지리(古地理) 수록분포도(水陸分布圖)이다. 이 그림은 170만년전의 육교로, 도카라해협에서 끊어져 있다. 구주(九州)와는 육지로 이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대륙 남부와는 이어져 있다. 인류로 말하면 음인(猿人)과 원인(原人)의 시대에 중국대륙에서는 베이징(北京) 원인(原人) 등 다수의 원인화석(原人化石)이 발견되었다. 장래에 오키나와에서 원인이 발견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림 3은 40만년전부터 2만년전의 육교인데 그 간에 몇 번 부침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육교는 구주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카라해협에서 끊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남북 양쪽 절벽은 매우



(1) 200~170만년 전의 수륙 분포 (2) 170~100만년 전의 해륙 분포

(3) 100~40만년 전의 해양 가장 넓었던頃の 해륙 분포

(4) 40~2만년 전 사이에 몇 번 나타났던 육지의 분포

(『地學誌』 col.105, No.10, 東京地學協會 1996)

〈그림 3〉 제3기 말기에서 제4기의 류큐열도 및 부근의 고지제도(키무라 마사아키씨 원도)석기

P-Ye: 古黃河, P-Ya: 古揚子江, P-Se: 古尖閣川.

접근해 있었다고 기무라교수는 보고 있다. 아마시타초동인(山下町洞人)이나 미나토가와인(港川人)들의 신인그룹은 추측컨대 이 육교를 이용하여 남쪽에서 건너왔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후기 구석기시대 인들은 배나 뗏목 같은 도항수단(渡航手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으므로 섬에서 섬으로 따라가는 도래(渡來)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육교 전반의 40~20만년전이란 시대는 세계적으로 보아, 중국대륙에서는 마패인(馬壩人), 금우인(金牛人) 등 구인(舊人)에 속하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만약 그들의 일부가 이 육교를 이용했다면 류큐열도에서 구인 발견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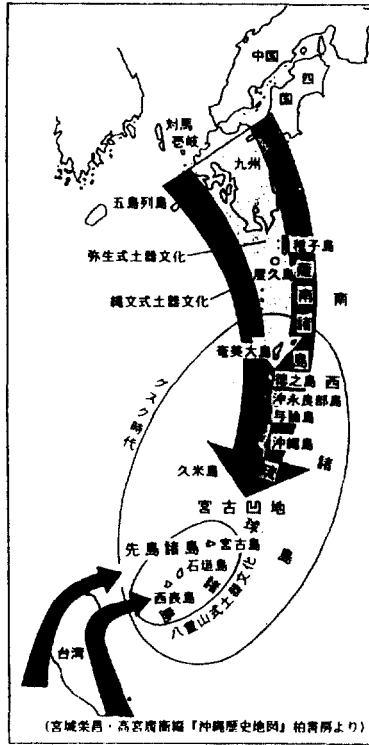
이 육교는 류큐열도와 중국대륙을 잇는 최후의 육교이었지만 그 후 완신세대의 해면 상승으로 인해 절단되어 오늘날 볼 수 있는 도서환경이 형성된 것이다.

구석기시대에 관해서는 상기와 같이 신인에 속하는 자료가 8개소의 유적에서 검출되었건만 인공유물(人工遺物)의 발견에 관해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실마리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석기시대의 설정을 부정하는 경향도 있다. 인공유물 발견이 오키나와의 구석기시대연구에 있어서 이후 최대의 과제이다.

3. 신석기시대

1) 두 개의 선사토기문화권

다음에 신석기시대연구의 성과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류큐열도에 전개된 선사토기문화의 최대 특징의 하나는 남북 양계통의 문화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주(九州)에서 두 개의 화살표가 남쪽으로 뻗고 있다. 바깥쪽의 큰 화살표는 조몽문화(縄文文化), 안쪽(백색바탕에 검게 칠한)의 작은 화살표는 야요이문화(彌生文化)의 영향을 나타낸다. 야요이문화는 아마미제도에 정착하였다



〈그림 4〉 야에야마(八重山)식토기문화의 기원과 나와·아요이(繩·彌生)식토기문화의 영향

는 설이 있고, 그 설에 따라서 화살표를 아마미제도에서 멈추었으나, 야요이시대의 문물, 예컨대 야요이식토기, 철기, 청동기 등은 오키나와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야요이에 유래하는 문물의 분포범위라면 그 화살표를 오키나와제도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오키나와제도의 남쪽에 미야코·오오치(官古凹地)라고 불리는 해협이 있고(그림 4), 그 미야코·오오치의 남쪽에 미야코(官古)·야에야마(八重山)제도가 있다. 이 양 제도를 총칭하여 사키시마(先島)제도라 한다. 그림 4의 조문(繩文)·야요이문화(彌生文化)의 화살표는 남쪽의 관고(官古)·팔중산제도(八重山諸島)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 선도지방(先島地方)에서는 오키나와제도와 다른 남방 기원의 독특한 선사문화가 개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는 미야코·오오치(宮古凹地)의 북쪽과 남쪽의 두 지역으로 나뉘서 선사문화를 개관하고자 한다. 우선 오키나와제도부터 보기로 한다.

2) 오키나와제도의 토기문화와 그 성격

오키나와제도란 오키나와 혼토오(沖繩本島)와 그 부속섬를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보통, 토기를 통해 문화권을 설정하거나 편년(編年)을 한다. 여기서는 토기를 중심으로 보기로 하는데, 오키나와제도의 토기문화는 구주(九州)의 조몽문화에서 유래한다. 현시점에서의 오키나와 최고의 토기는 조형문토기(爪形文土器)이다. 조형문토기란 그림 5의 1과 같이 엄지 손가락으로 토기면을 가볍게 누르면 토기표면에 얇게 팬 데가 생기고, 그 패인 곳의 한 쪽에 손톱 자국이 남는다. 이러한 지두압날문(指頭壓捺文)을 조형문토기라고 부르고 있다. 이 조형문토기는 점차 변화하여 최종적으로 빗(ヘラ)으로 그린 사선으로 바뀌지만 이런 종류의 빗으로 그린 문양도 조형문이라 불리고 있다.

조형문토기는 구주에서 두립문토기(豆粒文土器)와 융선문토기(隆線文土器)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난 토기로 승문(繩文) 초창기의 것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북해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보고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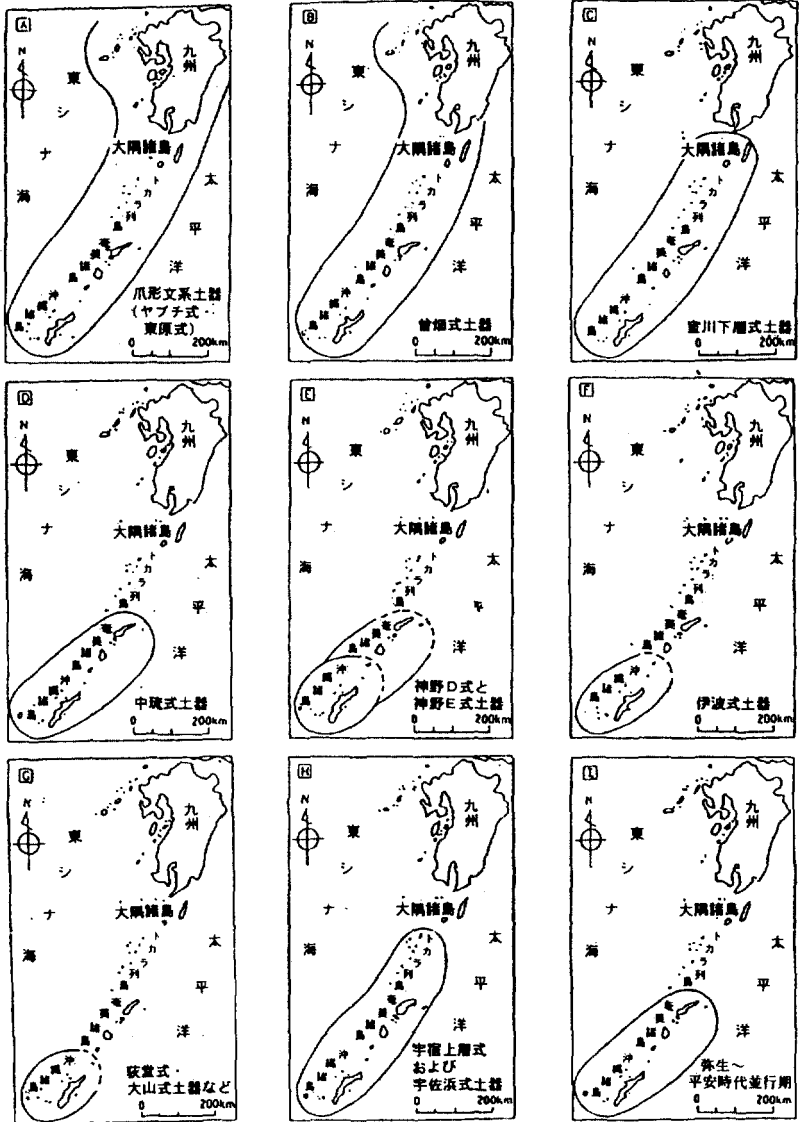


〈그림 5〉 오키나와의 9조형문(爪形文) 토기와 소바타식(會畑式) 토기영향

고 있다. 오키나와의 조형문토기는 큐슈 계통이리라고 보고 있으나, 구주의 조형토기에 비교하면 실연대가 많이 내려온다. 구주의 조형문토기는 약 10000년전의 조몽 초창기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것은 탄소연대의 측정치가 약 6500년전으로 양자 사이에는 3500년 이후의 차가 있다. 3000년 남짓이란 연대적 차는 너무 커서 양자는 비슷하기는 하나 다른 것이고 오키나와의 조형문토기는 다른 계층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많다. 조형문토기는 한국 남부에서도 출토보고가 있고, 큐슈와 오키나와의 조형문토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

조형문토기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약 5000년전의 조몽 전기의 소바타식토기(曾畑式土器)와 조흔문토기(條痕文土器)이다. 소바타식토기(그림 5의 2)는 서구주(西九州)의 조몽 전기를 대표하는 토기로 한국의 빗살무늬토기(櫛目文土器)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분포는 서구주가 위주이고, 동구주(東九州)에는 좀처럼 침투해 들어가지 않으나 바다를 건너 남하하여 오키나와제도까지 분포권을 확대한다(그림 6의 B). 이 시기까지 남도에는 도서 독자의 토기란 것이 없었고, 따라서 당시의 남도는 구주의 토기문화권에 포함되어 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조몽 전기 후반에 처음으로 남도형(南島型)의 토기가 출현했다. 무로카와 하층(室川下層)식토기가 그것으로 구주본토에서는 볼 수 없고, 종자도이남(種子島以南)의 남도에서만 분포한다(그림 6의 C). 그런 의미로 이 무로카와하층식토기(室川下層式土器)는 최초의 「남도형토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토기분포권의 동향에 주목하면, 범일본적인 것에서 점차 분포권을 좁히면서 류큐열도의 지역성이 출현해 가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림 6은 토기분포권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의 A는 조형문토기의 분포로, 앞서 구주의 조형문과 오키나와의 조형문이 다른 계통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였으나, 만약 같은 계통이라면 그림 A와 같은 분포권이 될 것이라는 그림이다. 이와 같



〈그림 6〉 남도(南島) 중·북부에서의 선사토기분포권의 추이

은 가정이 맞는다면, 그림의 실선은 아오모리(靑森)현까지 연장될 것이다. 그림 B는 소바타식토기의 분포도로 서구주(西九州)에서 오키나와제도까지가 하나의 분포권을 형성한다. 그림 C는 무로카와하층식(室川下層式)의 분포도로, 분포는 오키나와제도이북의 남도(南島)에 한정되어 있다. 그림 D는 거의 죠몽(繩文) 중기에 대비되는 중류식토기(中琉式土器)의 시대로 분포권은 더욱 작아져 공통의 토기는 아마미와 오키나와에만 분포한다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 중류식(中琉式)이란 중부 유구 혹은 중류큐(中琉球)에 분포하는 토기의 약칭으로, 이 가운데에는 몇 가지 형식의 토기가 포함된다. 그림 E와 F는 죠몽(繩文)후기의 시기로, 이 즈음이 되면 중류권(中琉圈)은 분해되고, 아마미는 아마미 독자의 토기를 갖고, 오키나와는 오키나와에서 아마미와는 다른 독자의 토기를 제작·사용하게 된다. 죠몽후기는 이처럼 여러 지역이 각각 가장 개성을 발휘하였던 시기였고 최소의 토기분포권을 그렸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죠몽 만기(晩期)가 되면 그림 H처럼 분포권이 약간 확대하여 도카라열도까지 포섭하고 만다. 이 시기의 말 쯤에 한국의 공열문토기(孔列文土器)가 구주를 경위하여 오키나와에 전해져서 원지리교역의 귀중한 자료가 되어 있다.

이상이 토기의 분포권으로부터 본 문화권의 추이지만 죠몽전기에 구주의 토기문화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점차 분포권을 좁혀 가면서 남도적 혹은 오키나와적 개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 그림에서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는 현재까지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깊이 들어갈 수 없다. 현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죠몽 만기 말의 공열문토기(孔列文土器) 뿐이다. 그러나 소바타식토기식(曾畑式土器式)을 고려하면 죠몽전기의 간접적인 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3) 야요이(彌生)는 고분문화 남도(南島)에 파급·정착하였는가
 일본본토에서는 조몽시대 다음이 야요이시대(彌生時代)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요이문화가 오키나와제도에 정착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미생관계의 고고자료는 앞에서 말했듯이 오키나와제도에서도 발견되어 발굴될 때마다 관계자료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야요이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벼농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당시의 오키나와는 홋카이도(北海道)처럼 속조몽(續繩文)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시대에 있어서의 한국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야요이 전기의 시기에 낙랑계토기(樂浪系土器)의 반입이 있었고 오키나와본토의 몇 군데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종류의 낙랑계토기는 구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러한 까닭으로 한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주목되고 있다. 또한, 한국경유로 구주에 전해진 대륙계마제석기(大陸系 磨製石器)도 오키나와의 여러 유적에서 검출되고 있어, 후자는 간접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본토에서는 야요이문화에 뒤이어 고분문화가 출현한다. 고분문화는 오키나와제도에 파급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오키나와에서는 앞서 말한 것 같은 원시토기문화(原始土器文化)가 헤이안시대말(平安時代末)인 12세기 전후까지 존속하게 된다. 그 후 권력자가 등장하는 구스쿠(グスク)시대, 즉, 축성의 시대로 이행해 간다.

그런데 이 야요이시대 이후에 전개되는 오키나와편년의 후기후반(後期後半)(일본에서는 고분(古墳)—평안(平安))의 시대에 한국을 기원으로 하는 어떠한 문물이 오키나와에 전래되었을까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의 구스쿠(グスク)시대에 이르러서는 별고(別稿)인 우에하라시즈카(上原靜) 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계 기와가 현저하게 출토되었는데, 이런 따위의 기와는 현재까지 구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려계 기와의 기원 해명

은 이후의 흥미있는 과제이다.

이상이 토기의 관점에서 본 오키나와제도의 선사시대에 관한 계보와 추이의 개요인데 당시 사람들이 도서환경에 어떻게 순응해 갔는가, 의식주를 포함한 경제와 문화의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명은 이후의 연구에 맡겨지고 있다.

4.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

지리적환경 다음은 사키시마(先島)제도의 연구상황인데, 다시 한번 그림 4를 보아 주기 바란다. 오키나와제도의 남쪽에 미야꼬오오치라고 불리는 해협이 있고, 그 남쪽에 미야코(宮古)·팔중산제도(八重山諸島)가 대만 가까이까지 분포하고 있다. 양자를 총칭하여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라고 한다. 이 사키시마제도 최서단인 요나구니지마(興那國島)에서는 하늘이 맑고 조건의 좋은 날이면 멀리 대만의 '옥산(玉山)(新高山)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고 사키시마제도 북부에 위치하는 미야코제도(宮古諸島)에서는 남쪽의 팔중산제도를 거쳐 대만까지 섬 따라 항해가 가능하다. 한편, 오키나와제도와 규슈사이도 섬 따라 왕래가 가능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규슈-오키나와 사이에는 조몽시대부터 항로가 열려 있었다. 그러나 고대인은 오키나와제도 남쪽에 전개하는 미야꼬오오치를 자유로이 왕래하지 못 하였다. 미야꼬오오치는 남북의 거리가 약 300km나 되어 고도의 항해기술이 없이는 건널 수 없다. 따라서 천수백년(千數百年) 전까지 오키나와제도의 사람들은 남쪽에 미야코지마(宮古島)나 팔중산(八重山)이 있고 거기에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고, 또 남쪽의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오키나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하였을 것이다. 바로 천수백년전까지 양쪽 지방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는 것이

며 사키시마지방(先島地方)에는 오키나와제도와 다른 독특한 선사세계가 전개되었다.

1) 갱신세(更新世)의 인류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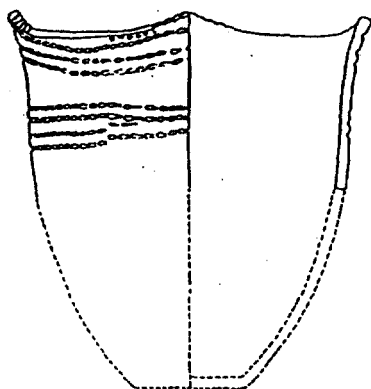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에서도 오키나와제도와 똑같이 갱신세(更新世)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시대의 유적이 알려지고 있다. 1982년에, 미야코제(宮古諸島)의 핀자·아부(ピンザ・アブ)(洞穴)에서 약 25000년전의 핀자·아부인(人)이 발견되었다(그림 1). 핀자·아부인도 신인(新人)(현대형호모사피엔스)으로, 출토자료는 모두 작은 뼈조각뿐인데, 형질적으로는 오키나와제도의 미나토가와인(瀨川人)에 가깝다고 한다. 핀자·아부인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여기서도 오키나와제도와 마찬가지로 인공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생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인공유물의 발견이 여기서도 큰 과제이다.

2) 신석기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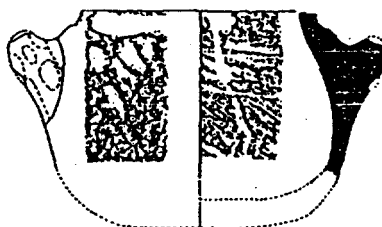
그리고 오랜 공백기간을 거친 다음에 신석기문화가 나타난다. 현재 가장 오랜 신석기문화는 팔중산제도(八重山諸島)의 시모타바루(下田原)식 토기문화이다. 이 문화는 팔중산제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북쪽의 미야코제도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수년전에 궁고제도 가운데서 팔중산에 가장 가까운 다라마(多良間)도에 영향이 미친 것을 알게 되었다. 미야코본도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오래된 토기문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량간도(多良間島)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미야코본도에서의 발견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다.

3) 시모타바루식(下田原式) 토기문화

그러면 시모타바루식란 어떠한 토기인가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겠



(1) 約3500年前の沖縄諸島の伊波式土器



(2) 約3500年前の八重山諸島の下田原式土器 (金武正紀氏原図)

〈그림 7〉 이하시키(伊波式)토기와 시모타바루식(土器と下田原式)토기

다. 그림 7의 1·2를 보기 바란다. 오키나와의 이하시키(伊波式) 토기와 팔중산의 시모타바루식을 제시하였다. 양쪽 다 탄소연대가 약 3500년 전으로 일본본토의 편년으로 하면 죠몽후기에 대비되는 시기이다.

먼저 기형(器形)부터 보기로 하자.

이하시키(伊波式) 토기는 가늘고 길어 심발형(深鉢型)인데 대하여 시모타바루식토기는 키가 작고 땅딸막하다(최근에 심발형의 토기가 몇몇 발견되고 있으나 미보고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하시키토

기는 구연부(口緣部)가 나팔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열렸는데, 시모타바루식토기의 구연부는 안쪽으로 내만(內彎)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하시키토기의 구연부가 파상(波狀)을 이루고 있는 점이며, 구연 상단에는 4개의 산형돌기(山形突起)가 있는데, 이것은 조몽토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일본의 조몽토기와 한국의 조몽토기는 기본적으로 달라, 파상구연인지 아닌지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산형돌기(山形突起)가 시모타바루식토기에는 없고 시모타바루식토기의 구연은 평구연(平口緣)이 되어 있다. 이하시키토기의 저부(底部)는 평저(平底)이지만, 시모타바루식토기는 평저에 가까운 환저(丸底)이다. 그리고, 시모타바루식토기에는 투추형의 손잡이가 2개 마주보는 위치에 부착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런 종류의 손잡이는 이하시키토기에는 없다. 기형상으로 양자는 이처럼 크게 다른 것이다.

다음은 문양을 보기로 하겠다. 이하시키토기의 경우, 구연부에 열점문(列點文)이 2조 수평방향으로 시문되어 있다. 그러나 시모타바루식토기에는 문양을 찾아볼 수 없다. 최근에 문양을 시문한 예도 약간 알려졌으나 시모타바루식 토기는 기본적으로 무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하시키토기는 구연부를 문양으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문양이 없는 것은 극히 드물다. 문양의 유무에서도 양자는 이처럼 다르다.

이상에서 서술한 두 토기의 특징으로부터 오키나와제도의 이하시키토기는 조몽토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그 반면 팔중산제도의 하전원식토기에서 조몽토기의 영향을 전연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는다.

그러면, 시모타바루식 토기의 원류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지금까지는 전혀 실마리가 없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만이지만, 현지점에서 조형(祖型)이랄 수 있는 토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필리핀이나 중국남부에서도 조형이라고 할 수 있는 토기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모타바루식 토기의 원류 문제는 이후

의 자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다. 이 시모타바루식 토기는 3000년 전에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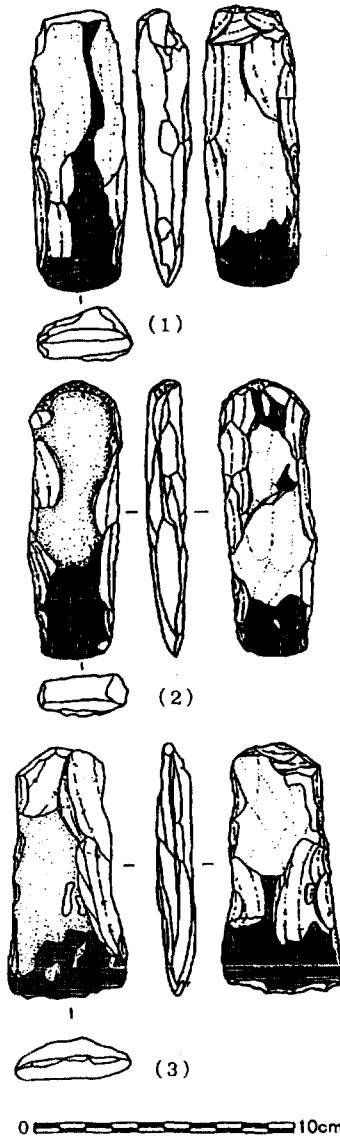
4) 무토기(無土器) 문화

이 시모타바루식 토기문화이후 토기를 수반하지 않고 석기를 주체로 하는 문화가 생겼다. 토기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토기문화, 이 시대를 무토기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무토기문화라 하면 구석기시대를 연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토기란 구석기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석기는 거의가 연마된 마제석기여서 신석기문화에 속하는 것이다. 즉, 신석기시대의 무토기문화라는 것이다. 팔중산제도에서는 토기를 수반한 유토기문화에서 토기를 수반하지 않는 무토기문화로 이행해 가는 것이다.

세계에서 신석기문화가 출현하는 양태를 볼 것 같으면, 선진지역(先進地域)에서는 먼저 마제석기가 출현하고, 다음에 토기가 나온다. 일단 토기가 나오면, 취사에 편하고, 이에 따라 조리법 등도 늘어 식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므로 그리 간단히 토기 사용을 중지해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팔중산에서는 웬일인지 토기가 갑자기 사라졌던 것이다. 왜 토기가 돌연히 사라졌을까?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 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추정은 제출되어 있다. 지면 관계로 주된 것을 2개만 소개하겠다.

그 중 하나는 유토기문화로부터 무토기문화로의 변화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실은 토기의 사용을 돌연 중지한 예가 세계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의 몇몇 섬에서 소실(消失)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같은 태평양권내에 있는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에서 같은 사례가 있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관점이다. 이 경우, 다른 종족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종족내에서 유토기문화로부터 무토기문화로 변화해 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110 다카미야 히로에이(高宮廣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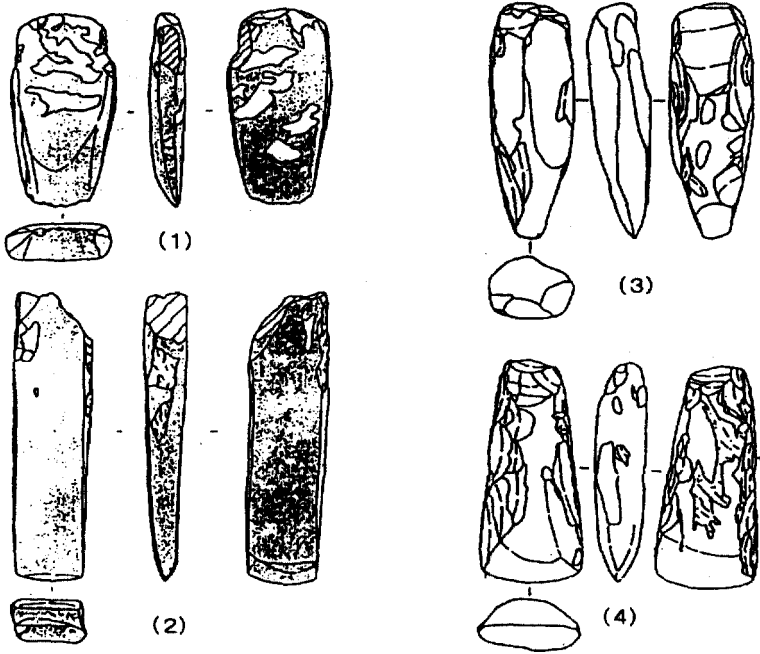


<그림 8> 대전원유적(大田原遺跡)의 돌도끼(石斧)(阿利直治氏原圖)

이에 대하여 토기를 가졌던 종족이 뭔가의 이유로 소멸하였거나, 혹은 선도제도(先島諸島)를 떠난 후, 이번에는 토기를 갖지 않은 다른 종족이 팔중산지방에 건너와서 정착하였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종족이 교체한 것이 된다. 쌍방에 각기 주장의 근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양 문화 사이에 계통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 문화에 토기가 존재한다면 토기의 계통관계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빠르겠지만, 후속의 문화에 토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 석기와 패제품(貝製品)·골제품(骨製品)까지도 알아 보았으나, 어떤 유적에서는 대량 출토되지만 다른 유적에서는 출토량이 적거나 혹은 전혀 없다든지 하는 것처럼, 유적간에 평균을 잡기 어렵고 하여 비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석기에도 이러한 불균형이 보인다. 그러나 석기 중에서 석부만은 양 문화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석부의 이러한 분포에 착안하여 관찰·분석을 시작해 보았다. 아직 연구의 시작 단계이나 현재 알게 된 범위에서 말하면, 팔중산제도의 석부는 오키나와제도나 일본본토에서는 볼 수 없는 일종의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필자는 「팔중산형석부」라고 가칭하고 있다.

팔중산석부에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 현재 알려진 범위에서 특징을 두 가지만 소개하면, 특징 하나는 기면조정(器面調整)이 거칠다는 것이다. 그림 8의(1)의 석부는 표면(그림의 좌측)의 경우, 두부(頭部)(기부)부터 인부(刃部)에 걸쳐, 중앙부만 연마를 하고(그림의 실선부분), 동부(胴部)의 좌우는 타결(打缺)인 채 방치되어 있다. 인부(刃部)는 횡방향으로 약간 폭넓게 연마되고 있다. 표면(그림 8(1)의 우측)은 인부와 그 바로 위를 연마하고 다른 부분(胴部부터 두부까지)은 타제(打製)인 채로 있다. 그림 8(2)의 이면(좌측)은 인부와 바로 그 위만 연마하였으나 이면(그림의 우측)에서는 인부 이외에 동·두부(胴·頭部)의 일부에도 연마한 흔적이 간신히 인정된다. 요컨대, 이면은 우선 전면마제(全面磨製)로 할 것을 의도하였으나, 동부(胴



(1) · (2) 八重山具塚(金武正紀氏原圖), (3) · (4) 赤碓具塚(阿利直治氏原圖)

〈그림 9〉 팔중산제도(八重山諸島)의 돌토끼

部)의 타결조정(打缺調整)이 거칠어서 깊게 도려내진 부분에는 연마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하였던 예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석부를 필자는 가칭 「변형전면마제(變形全面磨製)」라고 부르고 있다. 전면마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도하였던 것과 같은 효과를 얻지 못 하였던 석부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팔중산형석부의 특징의 하나에 이러한 기면조정(器面調整)의 거칠음이 있다.

팔중산형석부의 또 하나의 특징은 평면의 꼴, 즉 평면형태이다. 기본적으로는 3 종류의 형태가 있다. 세분하면 30여 개의 서브타입으로 나누어지지만, 집약하면 대략 세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인부(刃部)가 가장 넓고, 기부(두부)로 가면서 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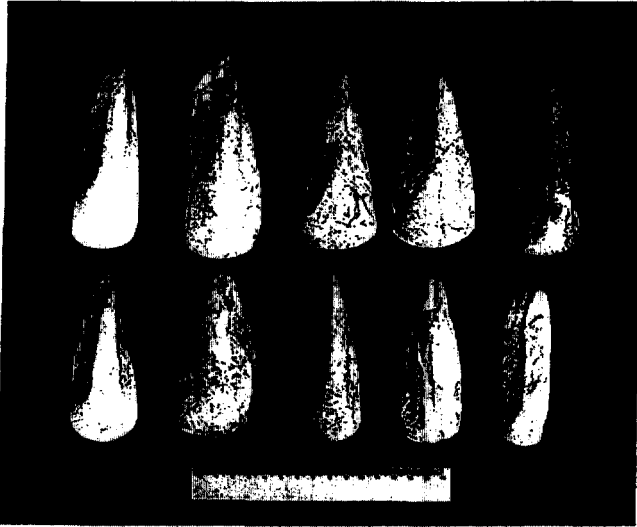
줄인, 이른바 바치가타(撥型) 석부이다. 그림 9(4)가 그것으로, 가장 폭이 넓은 부분에 날을 새웠다.

두 번째는 석부의 양측 연(緣)이 평행인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단책형(短冊型)이다. 양측 단이 평행한 석부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 크게 다섯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9(2)는 단책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두부와 동(胴)·인부(刃部)가 거의 같은 폭이다.

세 번째는 인부의 폭이 기부(두부)보다 좁다. 즉 발형(撥型)의 반대 형태를 하는 것으로, 그림 9의(1)이 그 예이다. 인부의 폭이 기부(두부)보다 좁아지고 있다. 그림 9의(2)도 이 부류의 것이다. 즉, 역발형(逆撥型)의 부류인데, 이에 대하여 어떤 명칭을 부여할 것인지 여러가지 생각해 보았으나 명안이 떠오르지 않아 가칭으로 「역인형석부(逆刃型石斧)」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팔중산형 석부의 평면꼴은 기본적으로는 (1) 협인형(狹刃型), (2) 단책형(短冊型), (3) 발형(撥型)의 3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단책형과 발형은 오키나와제도와 일본본토에도 있다. 그러나 협인형 석부는 오키나와나 일본본토에서는 드물고, 팔중산 특유의 석부이다. 팔중산지방에서는 하나의 전통적인 타입으로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협인형석부가 오키나와제도와 일본본토 등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생긴 형태이지, 전통적인 타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협인형은 팔중산의 독특한의 석부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특수한 형태로 인하여 협인형석부는 팔중산 선사문화의 뿌리를 탐색해 나갈 때, 중요한 열쇠가 될 유물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런 부류의 석부는 대만에도 약간 있다. 그러나 협인형만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뿌리찾기의 중요한 열쇠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들 세 형태에 관하여 유토기·무토기문화에 있어서 출토하는 경향을 볼 것 같으면 세 형태가 모두 양 문화에 공통



〈그림 10〉 미야코제도(宮古諸島)의 패부(具斧)(浦底遺跡, 安里임 淳氏原圖)

적으로 존재한다. 단지, 협인형석부는 유토기시대에 다소 많았고, 무토기시대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에 있었다. 어쨌든 양문화에 존재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기면조정이 거칠다는 점 역시 양 문화에 공통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유토기/무토기 양 문화는 계통적으로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관점은 평면형과 기면조종만을 본 추찰이므로, 이후 단면형태와 제작기법, 그리고 공구나 농기구나 등 기능면의 검토도 시야에 넣은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패부문화(具斧文化)

그런데 팔중산에는 또 한가지 불가사의한 선사문화가 있다. 샤코조개(シャコ貝)로 만든 도끼(그림 10)의 문화, 즉 패부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패부문화도 기본적으로 토기를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토기시대에 속한다. 이제까지 무토기시대의 석부와 패부는 양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무토기문화를 구성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表 1. 팔중산제도 주요유적의 ¹⁴C연대
(參考資料として一部のみ掲載)

| I) 無土器時代 | ¹⁴ C年代 |
|--------------|---|
| 1. 名藏第Ⅱ地点 | 945±75 |
| 2. 仲間第一具塚 | 1210±10 1250±65 |
| 3. 神田具塚 | (Ⅲ層) 1540±80 940±65 (Ⅳ層) 940±65 |
| 4. 船浦具塚(Ⅲ層) | (Ⅲ層) 1330±70 1730±70 (Ⅳ層) 1440±70 1530±70 |
| 5. 大泊浜具塚 | (Ⅳ層) 1530±70 (X) 1770±70 (X I) 1560±70 |
| 6. カイジ浜具塚 | (Ⅲ層) 870±75 920±75 (Ⅵa) 1360±140 1770±85 (Ⅵb) 1480±75 1850±75 (Ⅴ層) 1470±80 1540±75 |
| 7. 名藏第5地点 | 2140±85 |
| 8. 浦底遺跡(宮古島) | (Ⅲ層) 1880±750 2180±75 2200±75 (Ⅳ層) 2340±75 2520±75 |
| Ⅱ) 有土器時代 | ¹⁴ C年代 |
| 1. 大田原遺跡 | 3970±95 |
| 2. 下田遺跡 | 3280±100 |

표 2. 팔중제도의 고고편년시안(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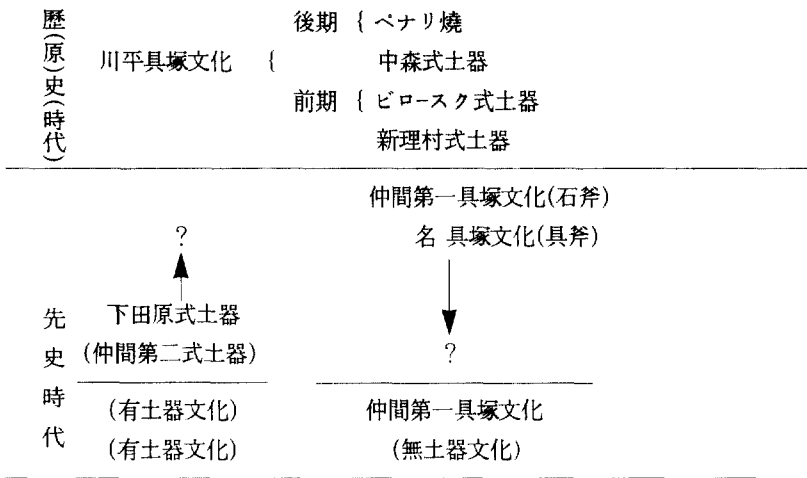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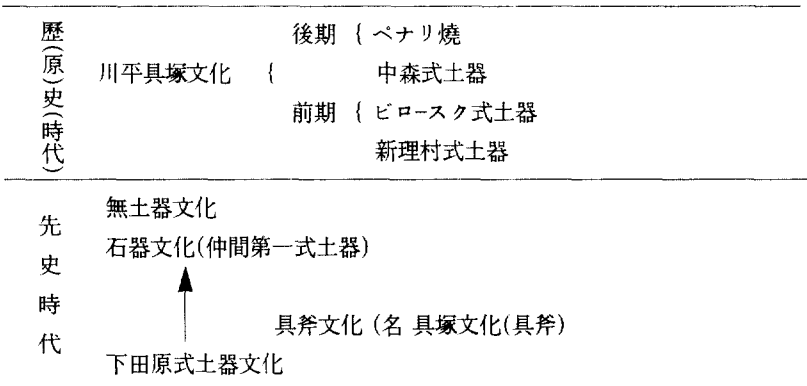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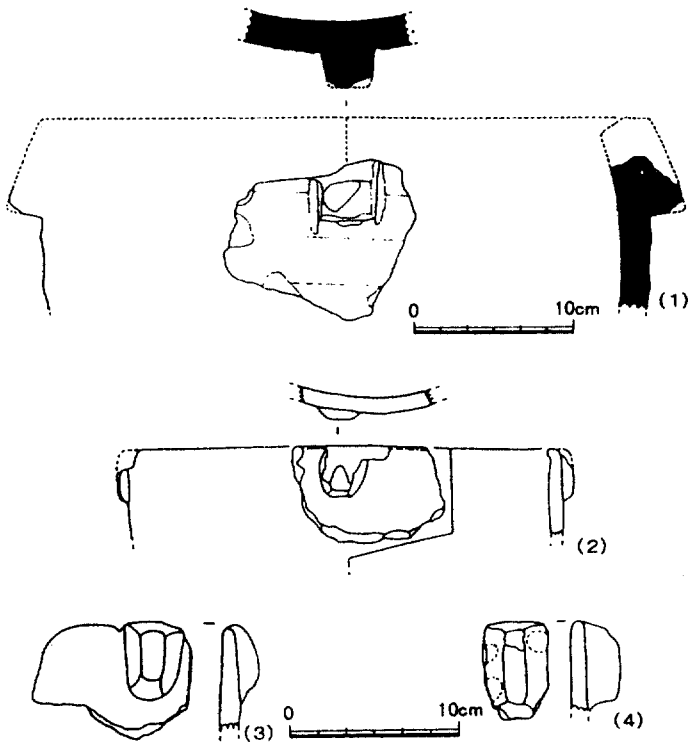
表 3. 八重諸島の考古編年試案(B)



보고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면, 각자가 성격을 달리하는 문화가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만 서술한다면, 패부문화는 패부를 주체로 하고 석부를 근소하게 수반하는 조성을 가지고 있지만, 석부를 주체로 한 유적에서는 아직 확실한 패부의 반출례(拵出例)로서 알려진 것이 없다. 즉, 석부를 주체로 한 문화에는 패부가 결락(缺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패부문화와 조성을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석부문화와 패부문화는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양자간의 탄소연대에 관한 문제가 있다. 표 1에 주요유적의 연대를 표시하였다(지면 관계상, 일부만 게재). 로마숫자의 I은 무토기시대, II는 유토기시대의 연대로 모두 B.P.이다. 무토기시대의 1-6은 석부문화의 연대로서, 오랜 것이 1800년대, 새로운 쪽이 800년대



(1) 滑石製石鍋(大泊浜具塚), (2)~(4) 新里村式土器(新里村遺跡)

〈그림 11〉 팔중산출토의 골석제석과(滑石製石鍋)와 신리촌식(新里村式)토기(金武正 紀氏原圖)

이다. 이에 대하여 패부문화(표의 7·8)는 2500~1800년대에 분포하고 있다. 패부문화가 석부문화에 선행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상이점을 두고 볼 때, 석부문화와 패부문화는 다른 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런 경우, 패부문화와 석부문화가 무토기문화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관련지어져야 할 것인가,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 문제는 미해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 2에서는 패부문화를 유토기/무토기문화의 계열에서 빼고, 권외에 자리를 잡아 주어 보았다. 표 2는 유토기/무토기문화가 각각 무관계이며 별개의 계통이라고 해석하였을 경우의 상정도이다. 전술한 분석에 따르면 표 2 쪽이 사실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다음은 패부문화의 뿌리인데, 패부는 태평양제도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메라네시아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최서단의 분포지는 필리핀의 술루제도와 팔라완섬이다.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의 패부는 팔라완섬의 것에 근사하다고 한다. 단지, 사키시마제도와 팔라완섬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필리핀의 루손섬과 대만에서는 아직껏 패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중간지대인 대만이나 필리핀 등에서 패부가 발견되면 선도제도의 패부의 뿌리도 연구하기 쉽게 된다.

이 무토기문화는 12세기 경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때 쯤, 구주기원(九州起源)인 활석제(滑石製) 석과문화(石鍋文化)(그림 11의 1)가 남하한 경향을 입어 오키나와제도에서는 이른바 구스쿠토기가 탄생하였다. 구스쿠란 앞에서 약간 언급하였지만, 오키나와방언으로 성(城)을 뜻한다. 즉, 성의 유적 등에서 출토하는 토기를 총칭하여 구스쿠토기라고 하는데, 이 구스쿠토기의 조형(祖型)이 활석제 석과인 것이다. 활석제 석과는 당시 고가의 제품으로, 구주에서는 이 석진(石鑛) 1개를 소 네 마리와 교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서민이 간단히 입수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

서 서민은 점토로 모제품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활석의 원산지는 구주에서는 나가사키(長崎)현에 국한되어 있다.

활석제 석과문화는 더 한층 남하하여 팔중산제도에서는 신자토무라시키(新里村式)토기(그림 11의 2~4)를 만들어 내게 하였다. 신리촌식토기(新里村式土器)는 후속하는 역사시대에 성행하는 외이토기(外耳土器)의 조형이다. 따라서 오키나와의 구스쿠토기와 팔중산제도의 신리촌식토기(新里村式土器) 및 그 계열의 외이토기(外耳土器)는 형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까지 따로따로의 선사토기문화권에 속해 있던 오키나와지방과 사키시마지방(先島地方)이 여기서 처음으로 공통의 조형에 유래한 토기를 갖게 되고 문자 그대로의 류큐문화권(琉球文化圈)이 형성되었다. 그림 4의 중앙부, 구스쿠시대의 표시 밑에 큰 반원형으로 둘러싼 부분이 왕국시대의 류큐문화권으로 이 문화권은 현재의 고고자료를 가지고 보면 12세기 경에 형성되었다. 그 때 아지(按司)라고 불리는 정치적 지도자가 각지에 나타나서 한 동안 군웅할거의 시대가 계속된 다음 1422년에 쇼오하시(尙巴志)란 인물이 전도를 통일함으로써 명실공히 류큐왕국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감사 말씀)

일본어의 한국어 번역은 오키나와국제대학 비상근강사 김동선씨께 수고를 끼쳤다.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참고문헌

- 1) 舊石器時代
- 鈴木 尙
1969 『骨から見た日本人のルーツ』 岩波書店.
- 鈴木 尙
1975 「沖繩に於ける洪績世人類の發見」, 『人類學雜誌』 第83卷第2號, 日本人類學會.
- Suzuki, H. and Hanihara, K.
1982 “The Minatogawa Man”, The University Museum, The University of Tokyo, 1982.
- Baba, H. et al.
1991 “Minatogawa Man, The Oldest Type of Modern Homo Sapiens in East Asia”, 『第四紀研究』 第30卷 第3號, 日本第四紀學會.
- 埴原和郎
1999 「沖繩の人—その起源を探る」, 『沖繩文化の起源を探る』 復歸 20周年記念 沖繩繩研究國際シンポジウム實行委員會.
- Sakura, H.
1981 Pleistocene Human Bones Found at Pinza-Abu (Goat Cave), Miyako Island-A Short Report,” Bulletin of the National Science Museum, Series D, Vol. 7.
- 高宮廣衛・玉城盛勝・金武正紀
1975 「出下町洞穴出土の人工還物」, 『人類學雜誌』 第83卷 第2號, 日本人類學會.
- 加藤晋平
1980 「沖繩のいわゆる叉狀骨器について」, 『考古學ジャーナル』 No.

167.

加藤晋平

1956 「南西諸島への舊石器文化の擴散」, 『地質學雜誌』 105-3, 東京地學會.

宮田榮二

1998 「南九州の舊石器文化」, 『日本考古學協會 1998年度沖繩大會資料集』 日本考古學協會.

木村政昭

1996 「琉球の第四紀古地理」, 『地質學雜誌』 105-3, 東京地學會.

2) 新石器時代

高宮廣衛

2000 「南島の先史世界」, 日本考古學會編 『日本考古學を見直す』 學生社.

高富資衛

1982 「渡具知東原會畑層出の土器」, 『沖繩國際大學文學部紀要(社會學科編)』 第10卷 第1號.

高宮廣衛ほか

1989 「宜宜野灣市宇地泊業久原還跡調査報告」, 『沖國大考古』 第10號 沖繩國際大學考古學研究室.

東門研治

2000 『尹札原C還跡』, 『考古學ジセーメル』 No.454, ニューサイエンス社.

新里貴之

1999 「南西諸島における彌並行期の土器」, 『人類史研究』 第11號, 人類史研究會.

金子浩昌

忍澤成祝 『骨角器の研究』 繩文編 I, 慶友社.

The Prehistoric Cultures of the Ryukyu Islands

Hiroe Takamiya

The Ryukyu islands were connected by land-bridges with the Asia continent at least twice in the Pleistocene period. The eight upper Pleistocene sites which produced Paleolithic human bones are reported. They all belong to *homo sapiens* (*sapiens*). However, no artifacts have been recovered to date from these sites, a present situation which prohibits the discussion of human activities in the period.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the Ryukyuan Neolithic culture is the duality of its roots. That is its northern and southern derivations. The islands north of Okinawa belong to the culture area of Kyushu origin. On the other hand, Sakishima (Miyako and Yaeyama) islands belong to the southern group (Fig. 1).

The Early Neolithic culture of Okinawa islands begins with Jomon culture, but is quite unique as compared to that of Japan mainlands. Through the Jomon period, pottery culture shows a gradual localization toward the end of the period in this region. The Sobata type pottery of kyushu, which is derived from the Korean comb-marked pottery, is distributed to Okinawa. A few types of Korean pottery are also found in several sites that show direct or indirect contacts with Korea. No domesticated animals were found, except dogs, which can be traced back to the Early Jomon period (ca. 5000y. B.P.). Agriculture is supposed to have

occured in the Final Jomon, but crops have so far been secured, although carbonized plant seeds were reported from a few sites.

The Yayai and Kofun cultures of Japan mainland do not distribute to the Ryukyus. From then, culture remains in a static state. The period is locally called "Late Neolithic or Late Shell Midden Age" and lasted until about the 12th century.

Pleistocene human bones were also found in Sakishima islands, which form the Southern culture area of the Ryukyus. However, no artifacts have been collected as in the case of Okinawa islands. No Jomon nor Yayoi cultural influences have hitherto been attested in Sakishima area whose origin is thought to be somewhere in south, but it is of obscure origin. The oldest Neolithic culture so far recognized, called the Shimotabaru pottery type, begins around 3500y.B.P. and vanishes around 3000y.B.P. Next, non-pottery culture appears around 2500y.B.P. and lasts until about the 12th century. During the period, culture changes from the shell axe/adze tradition to the stone axe/adze tradition.